



## 2005년도

# 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사업 현황

축산물등급판정소 규격개발팀장 황도연

### 서론

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사업은 정부 시책으로 쇠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소 산업 경쟁력 제고, 수소의 거세를 유도하여 고급육(1등급 이상) 생산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고급육 생산 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2002년까지 시행하다 잠시 중단 되었다가 2004년 7월부터 다시 시행해 오고 있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전국의 작업장에서 등급판정사가 소도체를 등급판정후 장려금 지급 대상축에 대한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통보서”(이하 “지급통보서”)를 발급하고, 본부에서는 지역 농·축협에서 가지급하고 신청한 내역을 정리하여 농림부에 자금을 신청, 배정받아 다시 지역 축협에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바, 2005년도의 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한우고기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산농가 및 지역 농·축협 관계자 등에게 본 사업의 근본취지와 요령 등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 본론

동 사업은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에 의거 고급육 생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생산자 단체를 통한 지역단위 한우사업 추진체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5년도 사업계획은 장려금 지급대상 사업량 61천두, 사업비 8,476,000천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동 사업 지원대상은 생산자 단체를 통해 생산자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거세우를 출하, 판정하여 1<sup>++</sup>A, 1<sup>++</sup>B, 1<sup>+</sup>A, 1<sup>+</sup>B, 1A, 1B등급을 받은 생산자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 상법상 법인으로 등록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목장, 농협중앙회, 수입하여 사육하는 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 사업의 추진체계는 농가에서 소를 출하할 때 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를 통해 생산자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등급판정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축산물등급판정사가 등급판정한 결과 장려금 지급 대상일 경우 지급통보서를 출하농가 및 장려금 지급 농·축협에 통보하고, 농가에서는 동 통보서를 가지고 지급 농·축협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농·축협에서는 등급판정사가 보내준 통보서와 대조, 확인후 농가에 장려금을 가지급하고, 등급판정소에 자금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소는 농림부(축산경영과) 및 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 보고하여 자금을 받아 지역 축협에 지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장려금은 지역 농·축협에서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생산농가에게 지급하는데 2005년도 및 2006년도 등급별 장려금 지급액은 표1과 같다

〈표1〉 2005년도와 2006년도 등급별 장려금 지급액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한 우		육 우	
	등 급	금 액	등 급	금 액
2005	1**A, 1**B, 1*A, 1*B등급	200	1**A, 1**B, 1*A, 1*B, 1A, 1B등급	100
	1A, 1B등급	100		
2006	1**A, 1**B등급	200	1**A, 1**B, 1*A, 1*B, 1A, 1B등급	100
	1*A, 1*B등급	150		
	1A, 1B등급	100	1A, 1B등급	70

2005년도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액은 표2와 같이 사업량은 계획 대비 17,439두 증가한 77,949두 였으며, 사업비는 계획대비 3,203,800천원이 증가한 11,679,800천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소사육농가에게 월 10억원 정도의 장려금이 지급된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증가한 것은 농가의 고급육 생산의욕 증가, 사양기술의 발달 및 2004년 12월 소도체 등급기준 개정(육질 1\*\*등급 신설 및 육량등급 개선)에 따른 결과 등으로 사료된다.

〈표2〉 2005년도 사업 계획과 집행결과

(단위 : 두, 천원)

구 분	계 획 (A)		집 행 (B)		증 감 (B - A)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품질고급화 장려금	60,510	8,476,000	77,949	11,679,800	17,439	3,203,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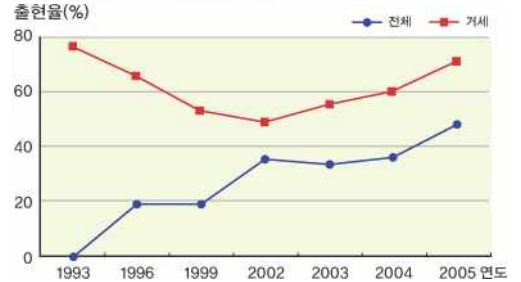
연도별 한우 1등급이상 출현율은 표 3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도 한우전체 1등급 이상 출현율은 47.9%였으며, 한우거세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0.4%로 나타났다.

연도별 한우 거세율 추이는 표 3과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년도는 등급판정환 대상축의 49.4%가 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연도별 한우 1등급이상 출현율 및 거세율 추이

구 분	1993	1996	1999	2002	2003	2004	2005	
1등급이상 출현율	한우전체	10.7%	18.8	18.9	35.2	33.3	35.9	47.9
	한우거세	75.7	65.4	52.6	48.5	55.1	60.1	70.4
한우거세율	0.8	2.3	10.5	38.2	27.9	35.1	49.4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추이〉



한우 거세율 추이



2005년도 시·도별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통보서 총 발행두수 77,935두 중 한우는 71,769두로 92.1%, 육우는 6,166두로 7.9%를 차지하였고, 사업 총 집행액 11,879,800천원 중 한우는 11,261,500천원으로 94.8%, 육우는 616,600천원으로 5.2%를 차지하였다.

2005년도 시·도별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 발급현황은 표 4와 같은데 지급통보서 발급두수가 제일 많은 도는 경상북도로 18,284두이고, 다음은 전라남도도 11,284두, 그 다음은 경기도로 9,110두 순이었다.

한우거세 출하두수가 많은 순서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순이었으며, 한우거세 출하 두수 대비 지급통보서 발급비율은 60.9%로 나타났다.

〈표4〉 시·도별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 발급현황 및 한우거세 출하두수 대비 비율

(단위: 두, 천원, %)

구분	전체		한우		육우		*한우거세	
	두수	금액	두수(A)	금액	두수	금액	두수(B)	비율(A/B)
서울	80	12,500	66	11,100	14	1,400	101	65.3
부산	18	2,500	16	2,300	2	200	100	16.0
대구	1,427	218,400	1,354	206,100	73	7,300	2,712	49.9
인천	605	86,100	408	66,400	197	19,700	805	50.7
광주	129	19,900	129	19,900	0	0	285	45.3
대전	27	3,800	26	3,700	1	100	56	46.4
울산	898	145,700	879	143,800	19	1,900	1,396	63.0
경기	9,110	1,348,600	7,310	1,168,600	1,800	180,000	12,578	58.1
강원	8,610	1,384,900	8,509	1,374,800	101	10,100	11,755	72.4
충북	4,402	651,500	3,699	581,200	703	70,300	6,129	60.4
충남	7,881	1,167,900	6,899	1,069,300	982	98,200	11,681	59.1
전북	7,002	1,085,700	6,567	1,042,200	435	43,500	10,422	63.0
전남	11,284	1,752,900	10,909	1,715,400	375	37,500	17,044	64.0
경북	18,284	2,745,100	17,399	2,656,600	885	88,500	30,430	57.2
경남	6,986	1,087,800	6,792	1,067,100	194	19,400	10,838	62.7
제주	1,192	171,500	807	133,000	385	38,500	1,483	54.4
계	77,935	11,879,800	71,769	11,261,500	6,166	616,600	117,815	60.9

주) \*한우거세 두수는 '등급판정신청서' 상의 '사육농가 주소에 근거한 자료로 한우거세 전체 판정두수 121,714두 대비 96.8%에 해당

또한, 상위 10개 시·군의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통보서 발급내역은 표 5와 같이  
1위는 경북 상주시, 2위는 경북 안동시,

3위는 경기 안성시 순으로 상위 10개 시·군의 장려금 지급통보서  
발급실적이 전체의 27.9%를 차지했고 금액으로는 전체 지급액  
대비 28.4%를 차지하였다.

〈표5〉 2005년도 품질고급화장려금 통보서 발급 상위 10개 시·군 (190개 시·군중)

(단위: 두, 천원)

순위	시·군	전체		한우		육우	
		두수	금액	두수	금액	두수	금액
1	상주시	3,333	509,400	3,294	505,500	39	3,900
2	안동시	3,223	479,900	3,177	475,300	46	4,600
3	안성시	2,900	424,900	2,185	353,400	715	71,500
4	황성군	2,274	358,000	2,231	353,700	43	4,300
5	고흥군	2,090	340,200	2,070	338,200	20	2,000
6	장흥군	2,104	329,300	2,025	321,400	79	7,900
7	평창군	1,587	264,000	1,586	263,900	1	100
8	합천군	1,483	227,900	1,404	220,000	79	7,900
9	당진군	1,478	227,900	1,336	213,700	142	14,200
10	장수군	1,310	211,600	1,297	210,300	13	1,300
계		21,782	3,373,100	20,605	3,255,400	1,177	117,700

2005년도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액 상위 10개 축협은 표 6와 같은데 지급액 1위는 경북 상주축협 614,100천원, 2위는 안동봉화축협 548,800천원, 3위는 경기도 안성축협 404,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6〉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액 상위 10개 축협 (전국 124개 축협 중)

순위	축산업협동조합명	지급금액	전체 대비 비율
1	경북 상주축협	614,100	5.2
2	경북 안동봉화축협	548,800	4.6
3	경기 안성축협	404,000	3.4
4	대구 대구축협	347,100	2.9
5	강원 횡성축협	346,700	2.9
6	전남 고흥축협	321,600	2.7
7	전남 장흥축협	274,500	2.3
8	강원 평창영월정선축협	268,400	2.3
9	전북 순정축협	262,400	2.2
10	전북 장수축협	232,400	2.0
계		3,620,000	30.5

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역 농·축협 입장에서 보면 장려금 가지급후 자금신청 및 배정 등에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가지급에 따른 이자 등이 지원되지는 않지만 조합원인 생산농가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서비스 제공차원으로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한다.

일부 지역 농·축협에서는 생산자 확인증명서 발급업무에 착오가 있어 기 발급한 생산자 확인증명서에 대한 발급을 취소한 바 있는데 생산자 확인증명서 발급시 사육규모 및 실제 사육농가인지 등 세밀한 확인으로 동 사업의 근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결론

2005년도에 동 사업으로 소 사육 농가에게 11,679,800천원이 지원되었고 2006년도에는 87억여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바, 정부에서는 2006년도 사업에 농립사업지침을 통해 사육규모 이상의 생산자 확인증명서의 발급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축산물등

급판정소에서도 사육두수 이상으로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통보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생산능가는 소를 출하할 때 생산자 단체를 통해 생산자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급판정신청시 제출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축으로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를 받았을 시 동 통보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기한이 경과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 농·축협에서는 연초에 동 사업 참여 계획서에 참여농가 명단 및 사육규모를 시·군을 통해 등급판정소에 통보하고, 생산자 확인증명서 발급시 참여계획서 상의 참여농가별 사육규모 이상으로 발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동 사업 참여농가가 포상금 지급기한 내에 포상금을 신청토록 유도하여 미 수령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우고기 1등급이상 출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도 사업이후 동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과 고급육 생산의욕으로 수입이 재개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생산농가, 지역 농·축협, 정부 관계자 등 모두가 힘을 합쳐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